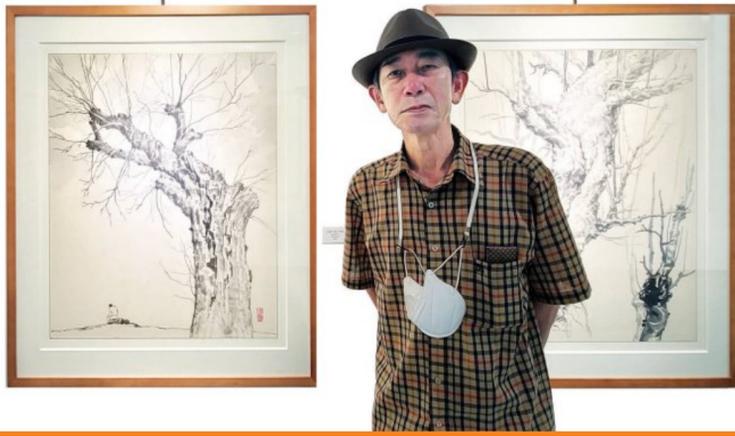


김경주 화백, 20년만에 개인전
29일까지 오월미술관...40점 전시

40년 자료·글·그림 담은
화문집 '결핍과 유편' 도 출간



“나와 사물 사이의 ‘떨림’ 그리고 싶었죠”

전시장에서 만난 화가는 ‘쑥스럽다’는 말을 반복했다. 폐업한 화가가 재개업 신고를 한 셈이라고도 했다. 앞으로는 소박한 것들을 주섬주섬 그려 가야 할 것 같다고 웃었다. 그는 명색이 화가인데, 무려 20년만에 개인전을 여는 게 무언가 중요한 일을 놓쳐버렸던 건 아닌가, 조금은 회한에 빠진 듯도 보였다. 40년 화업을 담은 화문집도 함께 나온터라 ‘한 시대의 삶’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선 앞에 다다른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오월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는 김경주(65) 화백은 인터뷰를 할 때도, 함께 그림을 둘러볼 때도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화가로, 문화운동가로, 교육자(동신대 사회문화대학)로 살아온 그가 20년만의 전시회 ‘목화꽃은 두 번 꽃핀다’ 전(29일까지)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전시에 나온 40점은 채색화 한 점을 제외하고 모두 먹으로 작업한 수묵화다. 강렬한 그의 판화가 각인된 터라 수수한 수묵화로 풀어진 작품들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얼핏 연필화처럼도 느껴지는 어떤 그림들은 맑은 수묵화의 매력에 오롯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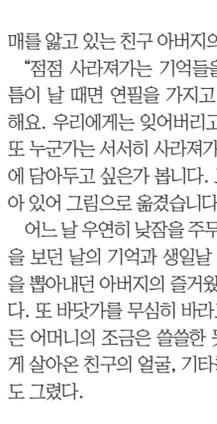
지난 8월 고향인 강진아트홀 초대전에 이어 열리는 이번 전시작품은 모두 지난해와 올해 그린 것들이다. 건강이 여의치 않았던 데다, 학교일 등으로 바빠 시간을 내기 어려웠는데 코로나 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림에 몰두했

다.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스케치나, 사진 기록을 하며 줄곧 마음 속에는 품고는 있었지만 오랜만에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행복했다.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을 소재로 그려보자는 생각이었어. 1980년대 사회적 발언이 강한 작품을 그렸다면 요즘에는 소소한 일상의 풍경들, 사물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구요. 나와 내 밖의 사물들 사이의 어떤 ‘떨림’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소재가 되는 듯합니다. 모든 장식적인 것들을 다 털어버린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잡지에 글과 그림을 엮은 ‘그림일기’를 연재, 탁월한 문장가로의 면모도 갖고 있는 그는 언제나 “그림으로 시를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등산, 새벽강의 물안개, 모란과 목화, 냇가, 박새와 가시나무를 소재로 한 작품들에서 시적 느낌이 묻어난다.

전시작 중 눈에 띄는 건 인물화다. 개인적으로 고고한 눈매가 인상적인 ‘흐린 기억’이라는 작품이 강렬하게 다가왔다. 치매를 앓고 있는 친구 아버지의 모습이다. “점점 사라져가는 기억들을 붙잡고 싶으신지, 틈이 날 때면 연필을 가지고 무언가를 쓰신다고 해요. 우리에게 애써 버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또 누군가는 서서히 사라져가는 기억들을 어딘가에 담아두고 싶은가 봅니다. 그 모습이 강렬히 남아 있어 그림으로 옮겼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낮잠을 주무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날의 기억과 생일날 맛있게 소리 한자락을 뽐아내던 아버지의 즐거웠던 표정들도 담아냈다. 또 바닷가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조금은 쓸쓸한 듯한 뒷모습, 치열하게 살아온 친구의 얼굴, 기타를 치는 자신의 모습도 그렸다.

결핍과 유편



‘흐린 기억’

광주향교 공기 2572년, 오늘 석전대제 봉행

광주향교는 공기 2572년을 맞아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한다.

광주향교는 만세종사인 공부자 외 4성인과 사계 선생을 비롯한 20성현의 유덕을 기리고 도의 정신을 숭상하는 추기(秋期) 석전봉행을 16일 오전

10시 광주향교 대성전과 잔디광장에서 봉행한다.

석전대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돼 있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으로, 전국의 모든 향교에서 춘기와 추기 2회 봉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병내 남구청

장을 비롯해 광주향교 전교, 향교재단 이사장, 유도회장, 모성회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성균관유도회, 원로유림 및 일반 시민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초현관 강기술, 아현관 최정민, 중현관 김운한, 동분현관 정영기, 서분현관 안규춘, 묘사유만권 진행, 축관 조연환, 집례 이재석이 봉행한다. 문의 062-672-7008.

이날 행사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병내 남구청 /전재문 기자 ej6621@kwangju.co.kr



지난 6월 30일 걸개시화전에서 펼쳐졌던 문인협회 공연 장면.

‘광주문학’ 창간 35년만에 100호 출간

지역 문인 작품세계 조명... ‘문학을 왜 읽어야 하는가’ 특별기고

광주 지역문단의 ‘저수지’ 역할을 담당해왔던 ‘광주문학’이 최근 100호를 발간해 ‘화제’다.

광주문인협회(회장 탁인석)가 발행하는 ‘광주문학’은 지난 1987년 창간호 발간 이후 35년 만에 100번째 책을 펴냈다. 문인협회 사정상 중간에 발행되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100호를 출간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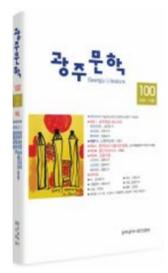
이번 100호 기념 특대호는 740여 쪽 분량의 방대한 지면으로 구성했으며 모두 161명 회원이 장르별로 작품을 게재했다.

‘광주문학’은 초창기에는 연간집으로 발행되다가 2000년 이후 계간지 형태로 정착했다. 이후 800여 광주문인들에게 소중한 작품 발표지면을 제공했다.

100호가 발행되는 동안 ‘광주문학’은 지역 문인들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다양한 기획과 특집을 게재했다. 광주문학의 비전을 제시할 뿐 아니라 광주문학의 정체성, 문학 담론을 담아왔다.

이흥수 전남대 명예교수는 특별기고 ‘문학을 왜 읽어야 하는가’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 숙연해지고 어려워지는 문제들을 성찰해 보도록 촉구하는 것이 문학일기”라며 100호 발행의 의미를 강조했다.

탁인석 회장은 100호 발간을 자축하며, 문학 도시 광주를 위한 새 시역 사업들을 제안했다. 광주의 대표적 문학 축제 정기 개최, 2022년 국제



PEN 한국본부와 함께 세계 한글작가대회 광주유치, 시(詩)가 일상 이 되는 도시를 위한 프로그램과 중점 사업 확장 등이 그것이다.

이번 100호에는 11명의 전임회장단(김수봉 작고 회장 제외)의 근황과 대표작, 원로회원, 명예회원, 신임회원, 복권회원과 지난해 계간평, 일반 회원 작품 등 읽을 거리가 풍성하다. ‘문학인과의 동행’에서는 서연정 시인이 강산에불꽃처럼 원로시인과의 대담을 나눴으며, 김용주 시인은 광주문학과 협약단체인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이길행 총재를 만나 라이온스 활동과 문학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소설가 이광남 작가의 ‘광주문단 뒷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담고 있어 행간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시인인 김정희 편집 주간은 “이번 100호는 ‘광주문학’이 도달한 한 지점일 뿐, 아직 완성이 아니다”며 “향후 200호, 300호를 위한 또 다른 시작”과 의미를 부여했다.

이흥수 전남대 명예교수는 특별기고 ‘문학을 왜 읽어야 하는가’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 숙연해지고 어려워지는 문제들을 성찰해 보도록 촉구하는 것이 문학일기”라며 100호 발행의 의미를 강조했다.

탁인석 회장은 100호 발간을 자축하며, 문학 도시 광주를 위한 새 시역 사업들을 제안했다. 광주의 대표적 문학 축제 정기 개최, 2022년 국제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청년미술가들의 ‘다른 표현, 같은 열정’

10월4일까지 광주문예회관

광주화단을 이끌어갈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제39회 광주청년미술작가회 정기전 ‘다른 표현, 같은 열정’ 전을 오는 10월 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들 저마다 작품에 사용하는 재료나 표현기법, 형식은 다르지만 예술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과 예술가로서의 신념과 투지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인 열정은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 작가는 고미아·김대욱·명현철·박지훈·양병규·조선아·조주희·최소애·최태홍·홍지희 등 22명이며, 이들은 개인의 경험에서부터 사회문제에 대한 생각, 동시대 이슈 등 다양한 주제를 신선한 시각과 젊은 감각으로 풀어낸다.

전시에서는 장지에 분채로 작업한 권예슬 작가의 ‘가시밭 길’, 캔버스에 혼합재료로 회화나무를 표현한 명현철 작가의 ‘회화나무’, 광목에 채색으로 선보이는 양수경 작가의 ‘기억의 한 줄기’ 등을 만날 수 있다.

1987년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20-40대 청년 작가들이 결성한 청년미술작가회는 서양



양수경 작 '기억의 한 줄기'

화, 한국화, 판화, 조각,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613-835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수상 [혁신상품부문] 수상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국제보청기